인도네시아 지진피해 지원 나선 기업들

1 SK, 조속한 피해 복구에 30만달러 지원

각 관계사별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도

SK가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재난구호 성금 30만 달러(약 3억3000만원)를 지원한다.

SK그룹은 2일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사회공헌소위원회를 긴급 개최, 해당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기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기부처와 방법은 인도네시아 정부측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북부 팔루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 규모 7.5의 강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 1일 기준 844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SK는 30만 달러 지원과 별도로, 각 관계사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SK는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에서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현물 제공과 무상서비스 실시 등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해 왔다. 지난 2013년에는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복구에 9억원을 지원했고,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 당시에는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지진과 쓰나미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중앙술라웨시 주 팔루와 동갈라 지역의 참상. /연합뉴스

2 롯데, 재난구호 성금 30억루피아 기부

롯데는 최근 강력한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재난구호를 위한 성금 30억루피아(약 2억2000만원)를 기부한다고 3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롯데마트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연계해 진행하며, 구체적인 기부처 및 기부 형태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8일 술라웨시섬에서 발생한 진도 7.5의 지진·해일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서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피해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워 피해 수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인명·재산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한-인니 동반자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그간 양국간 경제문화 교류에 앞장서며 인도네시아와 우호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왔다. 롯데케미칼, 롯데마트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면세 등 많은 롯데 계열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기도 하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10월 4일 (음 8월 25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어야 한다. **6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하다. **72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 **84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을 하면 고민은 해결된다.

소 **49년생** 심신이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61년생** 먼 곳에서 기쁜 소식이 오니 고민이 일시에 해결. **7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85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으나 편히 쉴 곳은 아니니 마음이 아프다.

호랑이 **50년생** 지금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62년생** 상대의 실수가 나에게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해내라. **74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86년생** 만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니 웃을 일이 없다.

토끼 **51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자. **63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75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다. **8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용 **52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64년생** 새로 시작한 일이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 **76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픈 마음. **88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있다.

뱀 **53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곧 봄이 오겠다. **65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77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다. **89년생**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말 **54년생** 비상금을 활용해서 일을 처리. **66년생**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한다. **78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90년생** 밤을 이겨내는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볼 수 있다.

양 **55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마음껏 즐기자. **67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자. **79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9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

원숭이 **56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침이 마른다. **68년생**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일을 더 빠르게 진행 시킨다. **80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마음을 굳게 먹어라. **92년생** 실력 있는 상사를 만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닭 **57년생** 마른논에 물이 들어오니 고민이 해결. **6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전진. **81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된다. **93년생** 상대에게 가장 큰 복수는 완벽하게 잊어 주는 것.

개 **58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70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고 관망. **82년생** 병도 약도 내 탓임을 잊지 말자. **94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돼지 **59년생**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 **71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유지가 오늘은 최선이다. **83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 **95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5		8
3			7				1	
		6		3				
8		3	2		1			
	2		5	4		8		
2	3			5	7		4	
1		8	3					
	7	5		2		3		

		9	5		7	2		
		5				1		
	1						7	
9			3		6			1
8		2		5		3		6
1			7		2			4
	9						6	
		7				5		
		3	1		4	9		

스도쿠 정답

9	8	3	4	2	1	5	7	6
2	5	7	9	6	3	8	4	1
6	4	1	7	5	8	9	3	2
3	9	8	6	4	5	1	2	7
5	6	4	1	7	2	3	9	8
1	7	2	8	3	9	6	5	4
4	1	6	5	9	7	2	8	3
8	3	5	2	1	4	7	6	9
7	2	9	3	8	6	4	1	5

7	8	9	4	2	1	3	6	5
2	1	5	3	6	9	7	8	4
3	6	4	5	7	8	1	9	2
4	5	8	2	9	7	6	3	1
6	9	1	3	5	4	2	7	8
1	4	7	6	8	3	9	2	5
5	2	3	9	1	6	8	4	7
9	7	6	8	4	2	5	1	3
8	3	4	7	2	5	1	9	6

문제 제공= 보누스

나라를 지키러 갔던 군인

기자 수첩

김 승 호 〈산업부〉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일부에서 말이 많은 것 같다.

군기가 바짝 든 군인들의 열병식이나 '강한 군대'를 뽐낼 수 있는 첨단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시가행진 없이 70주년 행사를 조용히 치룬 것에 대한 반감에서다.

얼마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치룬 터라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시킨 것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또는 군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트린 것 아니냐는 등의 시각이 그렇다. 오전에 하던 행사를 저녁에 한 것을 놓고도 '밤에 몰래 치뤘다'며 곱지 않은 모습이다.

행사가 있었던 이튿날 아침, 이런 해석이 담긴 언론보도를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국군의 날 행사가 바뀐 것은 평화 기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장병들의 관점에서도 해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열병식이나 시가행진을 위해 군인들이 4월부터 6개월 가량 준비하고, 특히 더운 여름이면 열사병 등으로 고생했던 과거의 답습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은 장병이 주인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 말대로 화려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던 시절 나의 군 생활이 떠올랐다.

무선통신병으로 강원도의 한 사단 통신대대에서 근무했던 기자의 주특기는 '삽둘삽'이었다. 당시 주특기번호인 '323'을 빗대어 매일 매일 작업에 동원돼 '삽질'만 한다는 뜻에서 부대원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

한번은 대령급이 대대를 시찰 나온다는 말에 새벽 서너시에 스무명 넘는 중대원들이 일어나 수십년도 넘었을 법한 취사장 벽과 천장의 그을음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 겨울철 잠결에 지워지지도 않는 그을음을 쑤세미로 밀고 있는 나와 동료들을 보고 그저 쓴웃음만 나왔다. 더욱 가관은 결국 그 대령의 시찰은 취소됐다.

어떤 날은 소대장과 상사, 사병들 열댓명이 역시 대령급이 사는 관사로 몰려갔다. 마당에 보이는 것은 잔디밖에 없는데 그 속에 숨어 있는 풀을 뽑으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너시간동안 풀이 아닌 잔디만 뽑다 돌아왔다.

군의 사기를 위해 강한 군대를 마음껏 뽐내던 바로 그 국군의 날 행사가 풍성했던 시절 한 전방부대에서 겪은 군발이의 경험이야기다. /bada@metroseoul.co.kr

김상회의 四季

운세와 시절인연

지인과 한담을 나누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인이 자기이름을 말하며 맞느냐고 물었단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느냐고 했더니 저쪽에서 어떤 손님이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손님은 지인의 친한 대학친구였다. 서로 연락처를 잊어버려 소식을 모르다가 20여 년 만에 만났다고 한다. 깜짝 만남을 겪은 지인은 불가(佛家)의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시절인연은 때가 되어 인연이 합해지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인연은 오고가는 시절이 있어서 만날 사람은 언제든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만나지 못할 인연은 애를 써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운세에 이런 시절인연이 있다. 사람이 벌이는 일 역시 애타게 원한다고 해도 운세가 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듯 운세에는 시절인연이 작용한다.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에 나선 남자가 있었다. 퇴직상담을 왔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사표 내는 걸 조금 늦추라고 했다. 제대로 준비하고 나서면 사업을 잘 끌어갈 사주였다. 그런데 당시는 운세가 땅 속에 묻혀있는 형국이었다. 그래서 1년 쯤 뒤에 회사를 나오라고 권했지만 바로 사표를 내 버렸다. 호기롭게 자영업에 도전했지만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매출이 너무 적었고 자금은 아슬아슬한 지경이 되었다. 1년이 지나니 문을 닫을까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다시 상담을 청한 남자에게 조금만 더 지나면 운세가 살아나니 문을 닫지 말고 버텨보라고 했다. 대운도 바뀌면서 폭염 뒤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형상이었다. 간곡하게 힘을 내보라고 했지만 남자는 한 달 뒤에 폐업을 했다. 자기에게 인연이 되는 때를 못보고 힘을 내야 할 때 장사를 접어버렸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힘든 길만 골라서 걸어간 셈이다. 불가에서 말하는 시절인연은 세상 모든 일은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사람의 만남도 사업을 벌이고 접는 것도 승진을 하는 것도 모두 적절한 시기가 있다. 때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때 노력과 인연이 잘 맞을 때 인생전환을 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55호